

이상윤·이보영 재회

“5년 전과 느낌 다르죠”

SBS TV 새 월화극 ‘귓속말’ 액션·멜로 환상 조화

연기파 부부가 곧바로 바통 터치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TV 월화극 ‘피고인’의 배우 지성과 같은 채널, 동시간대 후속작 ‘귓속말’의 이보영(38) 얘기다. 어쩐지 드라마 분위기와, 말은 역할이 비슷해 보인다.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감옥에서 고군분투하는 검사 박정우, 그리고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뒤집어씌운 판사에 복수하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모든 걸 내던지는 경찰 신영주. 다만 박정우와 달리 신영주는 복수의 대상과 동지가 되고, 결국 사랑에도 빠지게 되는 게 좀 다르다.

앞서 지성은 ‘피고인’에서 딸을 향한 부성애와 정의

를 실현하기 위한 집념을 실감 나게 그려내 다시 한 번

연기력을 입증했다. 아내 이보영은 그와 어떻게 비슷하게, 또 다르게 진실을 밝혀내고 절절한 멜로까지 소화해낼까. 대중은 벌써 연말 시상식에서 부부의 공동수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27일부터 전파를 탈 ‘귓속말’에서 서울 형사와 계장 신영주로 변신할 배우 이보영은 최근 SBS 본사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사청들에 대한 부담감은 별로 없는 편”이라면서도 “남편이 앞길을 잘 닦아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다만 지성이 조언을 해줬느냐는 질문에는 “일로 서로 조언하진 않는다”며 “게다가 계속 엇갈려서 집에 들어가 술작히 얼굴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또 “박경수 작가에 대한 믿음이 있다. 전에 쓰신 작품들도 다 보며 기다렸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참 재밌어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이보영은 2012년 KBS 2TV ‘내 딸 서영이’ 이후 5년 만에 다시 만난 이상윤에 대해 “내 딸 서영이” 때 호흡이 좋았다. 상윤씨가 의견 공유가 잘되는 ‘열린 연기자’이기 때문에 좋은 파트너다. 5년 전에 못 느낀 기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윤과의 멜로에 대해서 “대사들이 제가 실제 연애를 하고 있거나 헤어진다면 응용하고 싶은 정도로 멋있다”며 “일반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와는 다르고, 두 사람 다 코너에 몰려 서로만 남게 되면서 하는 사랑이기에 멋있는 멜로”라고 설명했다.

직업이 경찰이다보니 액션도 많이 소화하고 있다. 이보영은 “매회 이상윤씨를 제가 구하고 있다. 상윤씨는 편하게 기절해있다”고 웃으며 “온몸이 멍투성이긴 한데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든다”고 전했다.

권력을 탐하는 판사 역할을 맡은 배우 이상윤(36)은 “(이)보영 누나와 다시 한 작품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오케이’ 했다”고 말했다. 5년 전인 2012년 KBS 2TV ‘내 딸 서영이’에서 이보영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그는 “내 딸 서영이” 때와 둘 다 캐릭터는 아예 다르기 때문에 부담은 없었다. 오히려 전에 호흡이 잘 맞았던 분과 다시 작품을 하게 돼 좋았다”고 설명했다.



이보영

이상윤은 이 드라마에서 정의로운 판사였지만 ‘백’이 없어 번번이 정상에 다다르지 못해 결국 권력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이동준으로 변신한다.

그는 자신의 단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인생을 망치게 된 신영주(이보영 분)의 타깃이 된다. 동준과 영주는 적으로 만나 동지가 되고 결국 연인이 된다.

이상윤은 “박경수 작가 팬이기도 한데 동준이란 캐릭터 자체가 진한 남자 냄새를 풍기는 게 참 마음에 들었다”며 “박 작가님이 쓰는 어른들의 멜로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대본을 늘 기다린다”고 말했다. 또 “박 작가의 작품을 했던 남자배우들이 시청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끌어냈는데 저 역시 또 다른 느낌을 만들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윤은 또 이 드라마의 주제가 정의 구현과 맞닿아 있다 보니 시국과 연관된 부분이 없느냐는 질문에 “시국을 풍자하기 위해 이 대본이 쓰였는지는 감히 판단할 수 없지만, 정의가 결국 승리한다 메시지가 사람들의 응답함을 치유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던졌다.

‘세상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위험한 귓속말과, 나약하고 힘없지만 꼭 들어야 하는 귓속말이 있다’ 2014년 ‘편지’에서 호흡을 맞췄던 이병우 PD와 박경수 작가는 이 문장을 드라마의 모토로 내걸었다. 27일부터 매주 월·화요일 밤 10시 방송. /연합뉴스

TV조선·JTBC·채널A

방통위, 조건부 재승인

오보·막말·편파 방송 제재 강화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TV조선과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종편의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3사 모두에 대해 ‘오보·막말·편파 방송’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건수를 연 4건 이내로 유지하거나 줄여라’는 재승인 조건을 처음으로 부과했다.

재승인 기준점수에 미달한 TV조선에 대해서는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가 프로그램 진행자와 출연자로 인한 경우 진행자와 출연자를 모든 프로그램에서 출연 금지, 타 종편에서 제재 받은 진행자 및 출연자 배제, 생방송 시사프로그램 축소 등의 조건을 별도로 달았다.

방통위가 이들 3사의 재승인에 이린 조건을 부과한 것은 종편의 오보·막말·편파 방송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가 2014년 종편 재승인 때 부과한 조건의 2016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방심위에서 작년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심의를 받은 건수는 TV조선 161건, JTBC 29건, 채널A 74건, MBN 27건으로 2015년보다 증가했다.

이 가운데 행정지도도를 제외한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는 TV조선이 2014년 13건, 2015년 11건, 2016년 8건, 채널A가 각각 7건, 11건, 7건, JTBC가 각각 6건, 4건, 5건이나 된다.

또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실현 가능성’ 항목 점수가 210점 만점에 TV조선 108.4점, JTBC 148.15점, 채널A 124.85점, ‘방송발전 지원계획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점수(100점)는 TV조선 33.62점, JTBC 45.38점, 채널A 41.06점으로 TV조선이 가장 낮다.

방통위는 특히 TV조선에 대해 내년초 이행실적 점검에서 올해 사업계획서상 프로그램 편성비율과 투자계획 등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6개월 단위로 점검해 조건을 반복 위반하면 업무정지와 승인취소도 하기로 명시했다.

아울러 이들 3사에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프로그램을 합산해 매년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하라”며 보도·시사프로그램을 축소할 것도 요구했다.

고심사 상임위원은 TV조선에 대해 “심사위 종합소견과 마찬가지로 시사토크 등 제작비가 적고 자국적인 특정 장르에 편중된 편성으로 일관하고, 오보·막말·편파 방송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해 종편 사업자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그러나 TV조선 경영진과 최대주주가 청문회에서 밝힌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개선의지를 한번 더 신뢰하고 강력한 조건을 부과해 재승인하기로 했으며,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MBN은 오는 11월 30일 재승인 기간이 만료돼 별도의 재승인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재승인 때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같은 JTBC와 MBN, TV조선과 채널A 2개사씩 묶어 심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결여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SBS아침연속극 <아임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 (재)	00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 (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전망대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토크라 55 열린공간 토크 Talk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방송의 전설 55 명인 (재)	00 살림하는 남자들 (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55 닥터 365
2	45 콘서트 필 (재)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00 키즈 사이언스6	00 2시, 뉴스브리핑
3	35 공간다큐. 사람 55 감성애니 하루 2 (재)	00 아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독?독! 키즈스쿨 55 내친구 마카다	00 TV블로그 토크라 05 토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황금주머니 (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강건문록 남도에 살아라!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토크라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일일 특별기획 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완벽한 아내>	00 월화 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드라마 <귓속말>
11	00 KBS 뉴스라인 40 해외절작드라마 <리셀 웨폰>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행 길	10 초인가족 2017
12	30 101세의 프로젝트 (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 24 3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우간다 르완다조리레일 열대우림>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명품조림과 오이눈썹나물>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덩동당 유치원 1~2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EBS 스페셜 프로젝트 - 新 통과의례(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명품조림과 오이눈썹나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하기 - 한국에 산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특집다큐멘터리 (재) 13:40 EBS 스페셜 프로젝트 - 부모 고시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15:00 요술 상자 15:05 내 친구 아서 15:20 우주탐험가 잭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코코몽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두다다쿵(재) 16:45 덩동당 유치원 1~2(재) 17:15 엄마 개두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18:00 생방송 토크! 보너하니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9:30 EBS 뉴스 19:55 다문화 고부 별전 20:50 세계테마기행 <달콤한 침포. 토티마리아 제도 - 북마리아의 심장, 사이판> 21:30 한국기행 <나를 전쟁 - 청산도 나몰라쳐> 21:50 EBS 다큐 프리인 2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 新 통과의례 23:35 가칠남녀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세계의 드라마 <다운튼 애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27일 (음 2월 30일 癸丑)			
子	48년생 확실한 의사 표시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60년생 가장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2년생 변화의 폭이 크니 참으로 예상하기 힘들다. 84년생 이변을 자초하는 동세가 되어 버릴까 두렵다. 행운의 숫자 : 55, 31	午	42년생 활용한다면 편이한 결과를 낳는다. 54년생 잡다함을 차치해야 길조를 상승시킨다. 66년생 자제한다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겠다. 78년생 일관성 가지고 소신껏 행하라. 90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6, 06
丑	49년생 경정할 일이 아니니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 61년생 궁금해 왔던 비를 명쾌하게 파악한다. 73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85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만 난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7, 88	未	43년생 지난번의 형세가 다시 시작된다. 55년생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67년생 실속이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79년생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낫다. 91년생 기쁨의 자리에 함께할 수다. 행운의 숫자 : 05, 38
寅	50년생 오랫동안 갈구하여 왔던 힘의 기반이 생길 것이다. 62년생 행방을 좌우할 것이니 현명한 취사선택이 절실한 때이다. 74년생 쉬 더운 구들이 쉬 식는 법이다. 86년생 판도를 좌우할만한 결정적인 방도가 절실하다. 행운의 숫자 : 19, 96	申	44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될 것이다. 56년생 체면을 의식하다가는 아무런 일도 못 한다. 68년생 어떠한 경우라도 예정대로 이행해야 한다. 80년생 부족함을 채우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자. 행운의 숫자 : 48, 91
卯	51년생 모두가 하나하나 따르므로로 개별적인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63년생 큰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5년생 성취의 문이 열릴 것이다. 87년생 정성과 숨씨에 따라서 결과가 편이하리라. 행운의 숫자 : 54, 19	酉	45년생 있는 사실 그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라. 57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 법이다. 69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반드시 호전될 것이다. 81년생 묵착하는 바는 보이지 않고 불현함만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66, 44
辰	52년생 전체적인 대안이 되어 줄만한 확실한 해결책이 생길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64년생 힘들더라도 끝까지 잡아낸다면 반드시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76년생 바로 그것이다. 88년생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편하다. 행운의 숫자 : 17, 11	戌	46년생 분명하게 유념해야 할 것이다. 58년생 우회하더라도 지장이 없으니 착실하게 일하라. 70년생 다각적인 방법의 모색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82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행운의 숫자 : 59, 82
巳	53년생 주변 상황까지 정확히 살피지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65년생 막연하다면 공허할 수밖에 없으니 구체적인 필요가 있느니라. 77년생 참으로 기쁜 일이 생기게 되는 날이니라. 89년생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7, 85	亥	47년생 오는 이 막지 말고 가는 이 잡지 말자. 59년생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시기이다. 71년생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니라. 83년생 변화는 새로운 발전을 기약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9, 0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